

가장 좋은 길 (The Best Way)

고린도전서 13:1-13

Feb 3, 2019 MSPC

세상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무엇일까요? 그 중 하나가 사랑입니다. 그 이유는 사랑을 사람들이 가장 필요로 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란 말을 세상에서 가장 남용되는 말이기도 합니다. 사랑, 사랑을 말하다 어느 순간 원수가 되기도 합니다. 때로는 집착과 소유를 사랑이란 말로 포장을 합니다.

세상이 필요한 것은 진짜 사랑입니다. 세상에 가짜 사랑은 넘치는데, 진짜 사랑이 없으니 어둡고 공허합니다. **성경은 진짜 사랑을 아가페라고 부릅니다.** 옛날 헬라문화권에는 사랑을 의미하는 단어는 크게 3 가지 있었습니다. 아가페(agape)라는 말은 신앙적인 거룩한 사랑을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웃을 사랑합니다. 할 때 그 사랑이 아가페입니다. 필리아(philia)라는 말은 부모자식간, 형제간, 친구간의 자연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인간의 도리적인 사랑입니다. 또한 에로스(eros)라는 말이 있는데, 남녀간의 육정간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에로스적인 사랑은 동 물적인 사랑입니다. 육적인 사랑입니다. 성적인 사랑입니다. 쾌락적인 사랑입니다. 무엇보다도 에로스적인 사랑은 이기적인 사랑, 자기중심적 사랑(self-centered love)입니다. 이것 이 에로스적인 사랑입니다.

세상에 가장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참 사랑입니다. 바로 아가페 사랑입니다. 나 중심적인 사랑이 아니라, 다른 사람 중심적인 사랑입니다. 사도바울은

바로 본문 앞에 바로 고린도전서 12 장 마지막 절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고 말합니다. **가장 좋은 길을 보이기 위해 사랑장을 쓴 것입니다.** 가장 좋은 길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가장 중요하고 가치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참 사랑 아가페 사랑입니다. 가장 고귀하고 아름다운게 아가페 사랑입니다.

고린도전서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고린도는 오랜 전 부터 고대 교통, 상업, 정치의 중심지였습니다. 큰 두 바다가 만나는 항구도시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전 146 년 로마의 전쟁에 패해 로마로 넘어갑니다. 로마는 고린도번영을 질투해 100 년동안 고린도를 폐허로 두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오시기전 40 년 전에 로마 황제 시저가 고린도를 재건합니다. 급속도로 발전을 해서 아가야 주의 수도가 되었습니다. 바울이 살던 당시 고린도는 무려 60 만명의 인구를 가진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고린도는 또한 문화가 번성했습니다. 2 만명을 수용할 수 잇는 야외극장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열리는 운동경기는 올림픽경기 다음으로 유명한 것이었습니다. 반면 종교적으로는 대단히 혼란스러웠습니다. 고린도인들을 여러 신들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신전이 있었습니다. 특히 고린도의 유명한 여신 아프로 디스 신전에는 여사제만 1 천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사제가 아니라 창기들이었습니다. 우상 숭배와 성적타락이 신전에서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인처럼 행하다"라는 말은 성적 타락을 의미하는 말로 사용되었습니다.

바울은 이런 세속적 도시에서 제 2 차 선교여행중 고린도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 때가 약 주후 50 년경입니다. 고린도에서 1 년 반 전도를 끝낸 바울은 예루살렘, 안디옥을 걸쳐 에베소라는 도시로 갑니다. 에베소교회에서 목회 하면서도 고린도 교회의 관심을 갖고 소식을 주고 받습니다. 그런데 편지를 통해 고린도 교회에 대한 여러 문제를 듣고 바울은 안타까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영감을 받아 편지를 씁니다. 이게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는 부유하고 풍성하지만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오늘날의 대도시들과 마찬가지로였습니다. 그곳에 있는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먼저 분당(division)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싸웠습니다. 나는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베드로파다 나누어졌습니다. 그러다가 세상 법정으로 까지 끌고가 서로를 고소하며 싸웠습니다. 교회 지도자들도 다 똑같은 사람입니다. 목회자를 숭배하듯이 바라 보듯 것, 신격화하는 것은 위험하고 어리석습니다. 목회자들을 하나님께 안내하는 인도자일 뿐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사람을 누구파 누구파 하며 여러 분파로 나누어졌습니다.

또한 성적인 문란이 있었습니다. 많은 이방인들이 이전에 성적으로 타락한 문화속에 살다 교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교인이 되기도 똑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을 그들에 대해 혹독하게 비판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회개 안하고 계속해서 교회내에서 계속 음행하는 사람들을 묵은 누룩이라 부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 장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또한 빈부격차 때문에 '애찬'에까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누구는 많이 가져오는데 누구는 적고 부족하게 가져옵니다. 누구는 일찍 와서 먹는데, 늦게 와서 와서 못 먹기도 한 겁니다. 이 먹는 문제를 가지고도 불평이 생겼습니다. 한편 교제를 위해 먹을 걸 가져왔는데, 다른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이라고 밀쳐놓고 안 먹기도 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오늘날 현대 교회가 가진 온갖 문제를 총체적으로 가졌습니다.**

무엇보다 고린도 교회는 은사에 대한 잘못된 이해로 문제가 있었습니다. **특히 바울이 사랑에 대해 쓰게 된 이유는 성령의 은사와 관계가 있습니다.** 은사는 성령께서 신자들에 나누어주시는 것입니다. 이 은사를 통해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에게 유익을 주라고 주시는 선물입니다.(엡 4:12). . 그런데 어떤 신자들이 자신들이 받는 은사가 최고고, 다른 은사는 열등하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특별히 방언을 하는 사람들이 그런 교만한 주장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아니다 성령의 은사가 방언만 있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일부러 은사를 열거할 때, 방언의 은사를 맨마지막에 위치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도바울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영감을 받아 고린도전서를 기록해서 고린도교회에 보냈습니다. 그러면서신 **양생활에서 대해 무엇이 가장 중요한 가치와 원칙이 무엇인가 가르쳐 줍니다. 가장 귀하게 여기고, 그것을 따라 살아야 하는 것이“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을 말하며, 바울은 사랑이 없으면 다 헛것이 된다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1. 사랑이 없으면 모든게 다 소용이 없습니다. (1-3) . (If you don't have love, you gain nothing)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살았는데, 그 노력이 헛수고라면 얼마나 비참합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교회 생활을 열심히 했는데 그 수고가 헛수고라면 얼마나
기가막합니까? 사랑이 없을 때, 아무 소용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은사에
대한 문제를 가져온 방언과 예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방언과 예언 같은
귀한 은사 조차도 모든 것이 소용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1 절에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팽과리가 되고"**라고 말씀합니다. 아무리 방언을 해도 또 천사처럼 고상하고
아름다운 말해도 사랑이 없으면 다 소용이 없다고 합니다. 그저 그런 소리들을 귀를
상하게 하는 시끄러운 소음에 불과합니다.

**2 절에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 것도 아니요"** If I have the gift of
prophecy & I can fathom all mysteries & all knowledge, ...but have not love, I am
nothing."

예언의 능력이 있어서 미래를 바로 보는 능력이 있다고 합시다. 그래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것도 아니 라는 것입니다./ 과학에 관한 최고의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최고의
철학적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최고의 심리학적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최고의 신학적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성경을 잘 알아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한 모든 것이 허무한 것이됩니다..**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 것도 아니요"

믿음은 너무도 중요합니다. 사랑을 떠나서도는 산을 옮길만한 크런 믿음도 무가치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사랑의 실천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사랑이 없이는 은사도 지식도 놀라운 믿음도 무가치 하다는 것입니다.**

3 절 "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If I give away all my possessions, and if I hand over my body so that I may boast,[a] but do not have love, I gain nothing.

도대체 사람이 어떻게 내 모든 것으로 구제할 수 있을까요? 아마도 자기가 원하는 어떤 것을 얻기 위해, 자기 모든 것을 내주서 상대방을 구제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을 내어주는 구제 조차도 사랑이 없이는 아무 유익이 없는 것입니다.

"네가 네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

가끔 TV 에서 데모하다 분신하는 사람들을 뉴스를 봅니다. 어떤 이들은 목표를 이루지 못한 절망과 분노 가운데 분신을 합니다. 어떤 이는 정치적 이데올로기 때문에 분신합니다. 특히 베트남 같은 불교권에서는 승려들이 분신으로 저항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분신에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이란 들어 있지 않습니다.

아무리 자신의 몸을 던져도, 그 속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사랑이 없으면 다른 모든 것이 있어도 다 소용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4 절 부터 참 사랑 아가페 사랑이란 어떤 것인가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아가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the what is true love?) 오늘 본문에 열 다섯 가지가 나옵니다.

바울이 사랑을 말하며 제일 먼저 말씀이 사랑은 오래 참는 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어떤 환경이 어려울 때 오래 참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사람에 대해 오래 참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오래 참아 주시지 않았으면, 이 세상에 구원받을 사람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끊임없는 우리 죄와 반역을 오래 참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위에 보혈을 흘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 대해 오래 참아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사랑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리스 신화에는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프로크루스테스는 아테네 교외 언덕에 집을 짓고 강도짓을 하며 삽니다. 언덕 주변에

숨어 있다가 지나가는 사람을 납치해서 침대에 눕힙니다. 높은 사람의 다리가

침대보다 길면 다리를 잘라 죽입니다. 다리가 침대보다 짧으면 몸을 늘여서 죽였다고

합니다. 자신의 침대가 사람들의 생사를 가르는 기준이었습니다. 그러다. 결국

프로크루스테스 자신도 같은 방식으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 속에는 프로크루테스 침대와 같은 경향이 있습니다. 사람들을 쉽게 평가하고

정죄합니다. 그리고 나의 침대, 나의 기준에 안 맞으면 가차없이 정죄합니다. 그러다

결국 우리도 결국 내가 가진 침대에 묶여 나도 결국은 난도질을 당하게 됩니다. **진정한**

사랑에는 프로크루테스의 침대같은 침대가 없습니다. 참 사랑에는 치료하고 돌보고

살피는 침대만이 존재합니다. 사랑은 그 사람을 쉽게 정죄하지 않고 오래 참아줍니다./

그리고 나를 성가시게 하고, 화나게 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오래 참아주는게 사랑입니다.

계속해서 **4 절**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라고 말씀합니다. 영어성경에 온유를 친절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love is kind

그리고 사랑은 남을 질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랑 앞에서 자기를 자랑하지도
않습니다. 교만치 않습니다. 남을 look down 깔보지 않는 것입니다.

5 절 "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or rude. It does not insist on its own way; it is not irritable
or resentful;

6 절 "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7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가페의 사랑이 있으면 믿어집니다. 사람에게 대해서도 그 사람을 최대한으로
믿어줍니다. 사랑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대해 소망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랑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대해 참아 줍니다.

바울은 여러 가지로 사랑의 특징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많은 사랑의 특징 중
모든 것을 함축하는 말이 있다면, 나를 귀중히 여기듯 다른 사람을 귀중히 여기고
대하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다른 사람의 생명과 인격을 존귀히 여기는 것입니다.

8 절, "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폐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폐하리라.*" 세상에 모든 것은 이 세상에서 끝납니다. 그러나 사랑은 결코 떨어지지
않습니다. 없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천국까지 가지고 가는게 사랑입니다. 그래서
크리소스톰은 우리가 박해자들을 미워해서는 안될 이유에 대해, 사랑만이 떨어지지
않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박해자들은 믿는 자들을 괴롭히고 핍박하고 죽이기 까지

합니다. 그래서 생명이 떨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끝까지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사랑을 품을 때 사랑을 떨어지지 않고, 천국까지 영원히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제 사랑만이 우리를 온전케 한다고 말씀합니다. 9 절 “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10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리라 11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 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12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 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 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사람이 나이가 들어가는데도, 생각이 어린아이 처럼 미숙하면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어린아이는 미숙합니다. 자기 중심적 언어를 사용합니다. 또한 깨닫는 것이 미숙합니다. 자기중심적 사고관을 가집니다. 우리가 성숙해지려면, 사랑을 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온전해지는 길은 사랑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13 절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의 제일은 사랑이라* And now faith, hope, and love abide, these three; and the greatest of these is love. 우리가 믿음, 소망, 사랑을 늘 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무엇보다 사랑이 제일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은사도, 헌신도, 열심도, 믿음도, 소망도 무가치해집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사랑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쫓아야 합니다. 모든 것을 사랑을 따라 해야 합니다. 오늘 11 시 예배에는 누가복음 4 장 본문을 가지고 탐목사님이

설교합니다. 여기서 보면 예수님이 고향 나사렛에서 말씀을 전하신 후, 예수님을 죽이려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요셉의 아들에 불과하다고 폄하하면서 예수님을 낭떨어지로 끌고가 밀어 죽이려고 까지 합니다. 이들은 사랑을 선택하지 않은 인간 심령의 극치를 보여 줍니다. **사랑을 쫓지 않으면, 우리도 어쩌면 예수님을 거부했던 나사렛 사람들과 같이 될 수 있는 본성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도대체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사랑을 쫓을 수 있을까요? 사랑 좋은 말입니다. 그런데 이기적이고, 게으르고, 자기중심적인 내가 어떻게 사랑을 쫓을 수 있을까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 것도 소용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흘려주시기 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아가페 사랑을 바라보는 길입니다. 죄인인 나는, 자기중심적인 나는 그렇지 않으면 결코 아가페 사랑을 조금도 쫓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고, 그 사랑을 바라볼 때만,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새 계명"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에서 우리는 무엇을 쌓고 있습니까? 사랑만이 영원합니다. 영원히 없어지지 않고, 폐하지 않는 사랑을 천국까지 쌓아 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 사랑의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들을 위해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몸을 내어주셨고 피를 흘리시기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너도 미숙해서 너무도 자주 나 중심으로만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주님 무엇보다 사랑의 가치를 깊이 깨닫고, 사랑을 실천하며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은 영원하다고 하셨는데, 남은 우리의 생애 사랑을 따라 살고, 사랑의 흔적을 남기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